

<해(解): 기호와 사유 보고서>

상처뿐이었던 나의 말하기 습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중심으로-

2010학번
학과: 사학과
성명: 이용민

<목차>

I. 서론: 과거로의 상기..... P. 3

II. 본론: 나의 말하기 습관 분석 및 해결.... P. 3~6

(1) 20살, 방황과 좌절의 시기

(2) 나의 문제점: 구술 문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3) 문제 해결 후, 나의 말하기 습관

III. 결론: 느낀 점..... P. 7~8

※ 참고 문헌..... P. 8

I. 서론: 과거로의 상기

이번 학기에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수업은 ‘해(解): 기호와 사유’이다. 절대 듣고 싶어서 수강 신청을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졸업을 위해서 이수해야 할 교양필수 과목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이 수업이 매우 어려운 수업이라고 조언해주었다. 막상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니 매우 어려웠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소한 언어학에 대한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고사 전에 보았던 『일반언어학 강의』는 정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다. 보고 또 봐도 이걸 정말 아니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읽으면서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 책은 『일반언어학 강의』에 비해서 매우 재미있는 책이었다.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읽게 된 계기는 교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인류학을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내 머릿속은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나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살면서 그렇게 까지 ‘말’이나 ‘쓰기’에 대해서 깊은 사고를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당연한 일이다. 말과 쓰기는 우리에게 생활의 일부분이라 매우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쓰기에 대한 익숙함을 깨버린다. 그 익숙함을 깨버렸기 때문에 나는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 어느새 보고서를 써야 하는 시기가 왔다. 주제를 잡으려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막상 떠오르는 주제가 없었다. 주제를 빨리 잡고 싶다는 조급함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로 보고서를 쓰라고 말씀해주셨다. 지금까지 보고서 주제를 나의 삶과 결부시켜서 쓴 적은 없었다. 머릿속을 정리하니, 더 재미있고 참신한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주제를 생각하면서 ‘나의 말하기 습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 도달하자, 나의 말하기 습관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20살의 나로 돌아가게 되었다.

II. 본론: 나의 말하기 습관 분석 및 해결

(1) 20살, 방향과 좌절의 시기

2010년, 겨우 수시에 붙어서 대학에 올 수 있었다. 딱히, 대학이라는 곳에 갈 생각은 없었다. 그저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한 것뿐이었다. 그래도, 대학에 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나를 설레게 하였다.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대학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었다. 이전까지 없었던 자유가 주어졌고, 많은 사람을 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방향과 좌절을 모른 채 말이다.

대학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여자 동기들을 대할 때였다. 누나들을 대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여자동기들을 대할 때는 막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동기니깐 친해지고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도 걸고 그랬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동기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달라졌다.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고, 내가 말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였다. 게다가 더 웃긴 것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때 당시에 내가 여자동기들 중에서 한명을

좋아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 동기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상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여렸던 것 같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여자동기들의 냉랭하고 싸늘한 반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나는 방향과 좌절을 겪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용기보다 도망가고 회피하려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나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간다는 생각에 공부도 안하고 어정쩡하게 놀기만 했었다. 정말 안일한 생각이었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갈 줄 알았지만, 소학회 부반장이 되면서 1년을 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반장을 하게 된 이유는 그녀들과 조금이라도 관계 개선의 여지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들과 우연히도 같이 이야기할 일이 생겨서 모이게 되었다. 이때, 나는 나의 말하기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2) 나의 문제점: 구술 문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모인 이유에는 앞으로의 소학회 운영 때문이었다. 나 뿐 만 아니라, 다른 남자 동기들도 여자 동기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 그 모임에 갔었을 때, 정말 많이 어색했다. 1년이나 본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들의 관계는 처음 만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나는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녀들이 나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너는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것이 자기들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즉, 나의 말하기 습관이 그녀들과 사이를 안 좋게 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었다. 그녀들이 말하는 내 말하기 습관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였다.

- A-1. 말투가 싸우자는 식으로 들린다.
- A-2.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도 진심으로 느껴진다.
- A-3. 쓸데없는 말을 한다.

여자동기들에게 나의 문제점을 듣고 나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었다. 특히,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 말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참 충격이었다. 특히, A-2에 대해서 들었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말하기를 여자동기들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날, 하루 동안은 나의 말하기 습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여자동기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의 나의 말하기 습관도 생각하게 되었다.

- B-1.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 B-2. 입이 싸다.
- B-3. 목소리가 매우 크다.

위의 내용이 내가 찾은 평소의 나의 말하기 습관이다. 확실히,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았다. 이런 나의 말하기 습관의 문제점을 구술문화의 특징과 관련시켜서 분석을 하였다. 이것은 제 3장 구술성의 정신역학-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표현의 특징들에서 잘 나타난다. 아홉 가지의 특징 중에서 다섯 가지가 나의 말하기 습관에 해당

되었다.

- C-1. 분석적이라기 보다는 집합적이다.
- C-2. 상황하거나 다변적이다.
- C-3. 인간의 생활에 밀착된다.
- C-4.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다.
- C-5. 객관적인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적 또는 참여적이다.

위의 내용들은 나의 말하기 습관에 해당되는 구술문화의 특징들이다. 먼저, C-1을 살펴보자. C-1의 요점은 구술문화에서 무언가를 기억할 때, 정형구와 결부시켜 기억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구성요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기보다는 한데 모여서 덩어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보다는 '성실한 학생'이라고, '선생님'보다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A-3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요점을 말해야 하는데 요점을 말하지 못했다.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정형구적인 표현으로 시작했다. 즉, 학생이나 선생님만을 말하면 됐는데, 성실한 학생과 좋은 선생님을 말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고 지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C-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C-2는 소리로써의 말은 발화된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상황스러운 말투가 이런 소리로써의 말의 약점을 보완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스러운 말투가 자연스러운 말하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A-3와 B-1이다. 분명히, 상황스러운 말투는 자연스러운 말하기다. 하지만, 나의 말하기는 상황스러움을 넘어서었다. 자연스러움은 부자연스러움으로 변화하였다. 이것 때문에, 정신을 잡아 준다는 상황스러운 말투가 아니라 정신을 놓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스러운 말투가 되었다.

세 번째는, C-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C-3에서는 쓰기와 인쇄는 일상경험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식을 구조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말하기는 인간의 생활과 밀착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 유지가 없고 지식을 구조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A-2와 B-2이다. 나는 여자 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농담을 던졌다. 관계를 어느 정도 좁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말은 워낙 진심으로 느껴지는 말하기라는 것이 화근이었다.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거리가 좁혀졌다. 입이 썩 것도 단지, 거리를 좁히고 싶어서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면 안 되는 말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거리가 좁혀졌고, 이것은 나를 부정적 이미지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네 번째는, C-4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C-4는 구술 문화 속의 사람들의 대화가 논쟁적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흑인 남자들의 '더즌즈(dozens)'와 '조닝(joning)'이라는 놀이를 통해서 증명하였다. 그리고 《일리아드》의 폭력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A-1와 B-3가 해당된다. 나의 말하기는 여자동기들에게 매우 논쟁적으로 들렸다. 특히, 나의 싸우자는 식의 말투가 크게 작용했다. 이런 말투는 나의 큰 목소리 때문에 더 더욱 배가되었다. 나의 거칠고 사나운 억양과 어조가 여자동기들을 냉랭하게 만들었다. 또한, 나의 이런 큰 소리의 싸우자는 식의 말투는 주변 사람들을 화나게 한 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C-5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C-5는 구술문화에서 자신이 배우는 것에 대한 대상과 일체화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주인공의 기쁘거나 슬픈 상황에 감화하여 마치 내가 주인공인양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는 A-2와 B-3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애초부터 객관적인 거리유지가 안되었다. 여자 동기들과 친해지는 것도 중

요하지만, 이들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나의 말하기는 장난식이라도 진심으로 들리는 마력을 지녔다. 이 마력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큰 목소리는 논쟁적인 것과 겹쳐서 감정이입적이고 참여적인 특징을 배가시켰다.

(3) 문제 해결 후, 나의 말하기 습관

구술문화의 특징으로써 나의 말하기 습관은 구술문화에 너무나도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켜야 할 선을 못 지켰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내 말하기 습관은 너무 강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말은 소리이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야 한다.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나는 이 힘이 너무 강했다. 위의 여섯 가지 문제점들이 나의 힘을 구성해주었다.

나는 여자동기들하고의 모임을 끝내고,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하였다. 어떤 식으로든 나의 말하기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여자 동기들하고 문제가 생겼지만, 앞으로 나의 말하기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전 장에서 서술했던 나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다.

- D-1. 말꼬리를 [~냐] → [~니], [~나]로 바꾸었다.
- D-2. 조금 더 장난스런 말투를 하려고 노력했다.
- D-3. 내가 말을 해야 할 상황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 D-4. 상대방에게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생각하였다.
- D-5. 입을 다물었다.
- D-6. 목소리의 크기를 줄였다.

내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술문화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상황을 파악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D-1에서 나는 말꼬리를 [~냐]에서 [~니]와 [~나]로 바꿨다. 내가 [~냐]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 즉, 싸우자는 식의 말투로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조금은 부드러운 말꼬리인 [~니]와 사투리식인 [~나]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서, 나는 논쟁적인 어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D-2같은 경우에는 진심으로 들리는 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장난스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장난스러운 말투를 쓰면서 나의 억양과 어조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리고, D-1을 더해서 사람들과 좀 더 빨리 가깝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말하기에서의 진심이 라는 이미지를 없앨 수 있었다. 이 이미지를 없앴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계의 밀착을 배제할 수 있었고, 감정이입적인 측면도 최소화했다.

D-3~D-5는 상황과 관련된 해결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의 공통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했다는 점이였다. 쓸데없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입을 썼다. 다시 말하면, 눈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눈치 없는 행동이 장황스럽고, 감정이입적이며, 논쟁적인 어조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나는 싸우자는 식의 말투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였고, 나의 말이 무조건 진심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로 여자 동기들과 거리 유

지가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D-3~D-5처럼 나의 말하기 습관을 고쳤다. 요점만을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했다. 이를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거리 유지를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D-6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나는 목소리가 매우 큰 사람이다. 즉, 목소리의 힘이 매우 세다고 할 수 있다. 큰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에 주목시키도록 하는 데에는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C-4와 C-5를 더더욱 배가 시켰고, 나쁜 방향의 말하기로 가는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문제점을 고칠 때가 매우 힘들었다. 워낙, 성량이 큰 게 문제였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의 큰 목소리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언제 작용할지 모른다. 나는 이 최대의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논쟁적인 어조와 감정이입적인 구술문화의 특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상으로 나의 말하기 습관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D-1~D-6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나는 구술문화와 관련된 사고와 표현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였다. 즉, 20살의 나의 말하기 습관은 일차적인 구술문화에서는 매우 적합한 말하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일차적인 구술문화가 통하는 시기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세련되지 못한 말하기 습관을 고쳐야만 하였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나의 문제점을 고쳤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현재의 말하기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말하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더욱 더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다.

Ⅲ. 결론: 느낀 점

이번 보고서는 나에게 매우 신선했다. 늘 내 전공과 관련된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틀에 박힌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海): 기호와 사유를 들으면서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언어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서를 쓸 수 있어서 새로웠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보고서를 쓸 수 있었던 점은 ‘나’를 주제로 잡은 것이었다. 나를 언어학적 관점을 통해서 탐구하였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했다.

20살의 나의 말하기 습관은 ‘모난 돌’이라고 말하고 싶다. 난 세련된 말하기 보다는 거친 말하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거친 말하기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상처로 다가왔다. 그리고, 상처들이 모여서 나에게 방황과 좌절이라는 큰 시련을 주었다. 남들은 이런 것 때문에 방황을 했느냐고 비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나의 문제점을 빨리 알았다는 점이다. 나는 나의 말하기 습관을 부드럽게 바꾸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도 언제나 말을 할 때, 신경을 매일 써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뀌어야만 했다.

나의 말하기 습관을 구술 문화의 특징으로 보면 집합적이고, 장황하거나 다변적이며, 인간의 생활에 밀착되고,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고, 감정이입적이며 참여적이었다. 내가 만약에 1차적인 구술 문화 속에서 살았다면, 나름대로 괜찮은 말하기 습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어와 관련해서 매우 복잡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나의 말하기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문제점을 고쳤다. 구술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구술 문화의 특징에서 벗어난 말하기로 습관을 고쳤다.

내 말하기 습관을 고친 후에는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느꼈다. 나름대로의 성과였다.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은 자신감이 붙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녀들과의 관계는

아직도 평행선이라는 점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 다들 졸업하거나 학교를 떠나서 만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들에게 참 고맙다.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언제나 내 말하기 습관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찌다가 옛날의 습관이 나올 때가 있다. 그것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하지만, 언제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수님의 강의는 5장까지였지만, 겨울방학이 되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도서관에서 빌려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봐야겠다. 학기 중에는 수업교재로써 읽었기 때문에 제대로 집중해서 읽지 못했다. 왜냐하면, 퀴즈를 보려고 그리고 시험을 보기위해 보았기 때문이다. 방학 때는 학기 중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깐, 좀 더 집중해서 천천히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번 더 읽음으로써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 참고 문헌

- 월터 J. 옹, 이기우 외 1명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